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및 개선방안

202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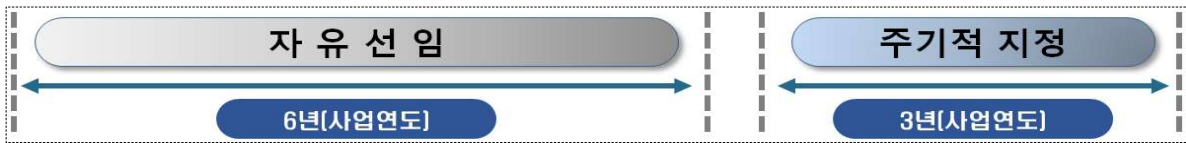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및 개선방안

1. 문제제기

- 2017년 회계 개혁의 일환으로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 회사는 2019년 220개사에서 2022년 677개사로 증가
 - * 주권상장법인 등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정부가 감사인 지정
-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의 독립성 제고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회계감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 초래
 -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급증, 감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新외감법 시행 전·후 지난 5년간 계속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단가 등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기적 지정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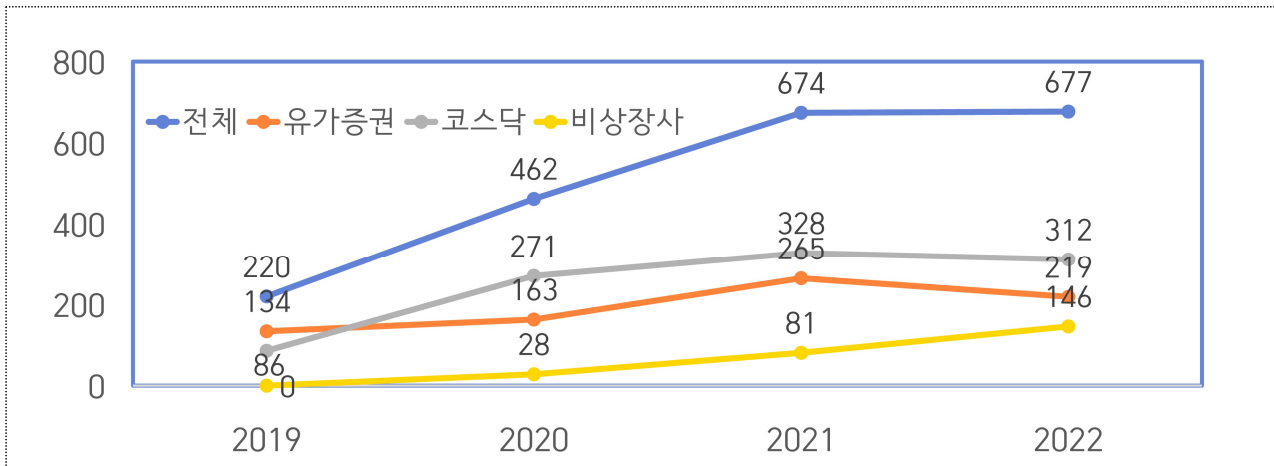
-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태 등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新외감법(17.10월 개정)을 통해 주기적 지정제 도입
 -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년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지정
 -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대표이사인 경우



- 다만 예외적으로 감리 결과 회계 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면제 가능

□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2019년 220개사에서 2022년 677개사로 증가하여 2019년 대비 208% 증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 자료: 금융감독원

- 상장회사 중 주기적 지정 비중은 2019년 10.1%(220개사)에서 2022년 22.0%(531개사)로 증가

- 상장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9년 134개사에서 2022년 219개사로 141.4%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86개사에서 312개사로 262.8% 증가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상장회사 수	주기적 지정	상장회사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 비중
			유가증권	코스닥	
2019	2,175	220	134	86	10.1%
2020	2,239	434	163	271	19.4%
2021	2,326	593	265	328	25.5%
2022	2,410	531	219	312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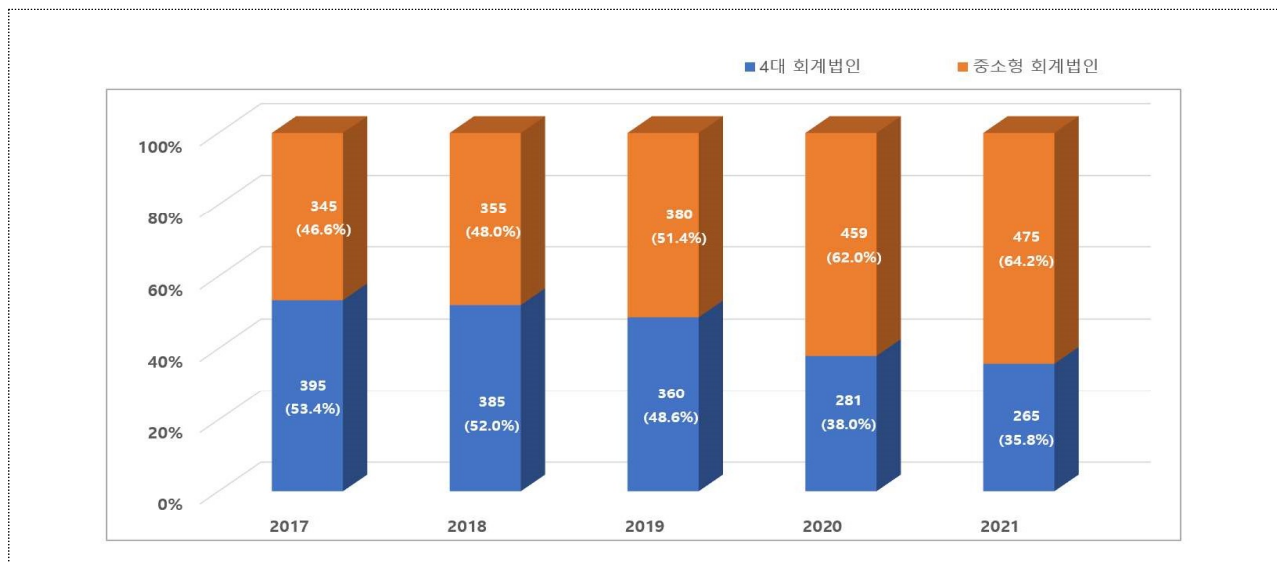
※ 자료 : 금융감독원

3.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및 문제점

①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보수 등 현황

- 新외감법 시행 전·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계속 상장 중견기업 740개 사(유가증권 369, 코스닥 371)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단가를 상장 시장별, 회계법인별, 자산규모별 분석
- 상장 중견기업 중 4대 회계법인 이용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소형 회계법인 이용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
 - 4대 회계법인 이용 중견기업 수는 2017년 395개 사에서 2021년 265개 사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형 회계법인 이용 기업 수는 345개 사에서 475개 사로 꾸준히 증가

<상장 중견기업의 회계법인 이용 현황>



* 4대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며, 중소형 회계법인은 나머지 회계법인

- 상장 중견기업의 자산규모별 감사인군은 2021년 대부분 다군·라군으로 579개 사 7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군·나군은 161개 사 21.8%로 나타남.
 - 자산규모별로 가군은 2017년 19개 사에서 2021년 62개 사로, 라군은 96개 사에서 229개 사로 증가한 반면, 나군은 129개 사에서 99개 사로 다군은 496개 사에서 350개 사로 감소

<상장 중견기업의 자산규모별 감사인군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17년대비 증감
가군(2조원 이상)	19	17	21	20	62	43
나군(5천억~2조원 미만)	129	140	146	157	99	▽30
다군(1천억~5천억원 미만)	496	501	497	501	350	▽146
라군(1천억원 미만)	96	82	76	62	229	133

가. 감사보수

- (감사보수) 新외감법 개정 전(2017년)과 비교해 2021년 평균 감사보수는 154.6% 상승했으며, 코스닥시장 감사보수 상승률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약 50%p 높았음.
-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 70만 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2억 5,640백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54.6%(1억 1,570만 원) 상승
 - 상장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2017년 1억 2,030만 원에서 2021년 2억 8,22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34.6%(1억 1,619만 원) 상승했으며, 코스닥시장은 8,12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으로 184.8%(1억 4,980만 원) 상승
 - 회계법인별로 4대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1억 1,950만 원에서 2021년 4억 6,280만 원으로 287.3%(3억 4,330만 원) 상승했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7,910만 원에서 1억 4,130만 원으로 78.6%(6,220만 원) 상승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년대비 증가(증가율)
전 체		100.7	118.8	146.0	197.2	256.4	155.7(154.6)
상장 시장별	유가증권	120.3	142.3	180.1	247.1	282.2	161.9(134.6)
	코스닥	81.2	95.4	111.9	147.6	231.0	149.8(184.5)
회계 법인별	4대	119.5	148.5	200.7	272.5	462.8	343.3(287.3)
	중소형	79.1	86.5	94.1	151.1	141.3	62.2(78.6)
자산 규모별	가군	311.3	423.1	599.3	761.7	1,208.6	897.3(288.2)
	나군	166.2	183.3	219.1	330.9	352.4	186.2(112.0)
	다군	82.5	97.4	115.2	145.0	150.0	67.5(81.8)
	라군	64.8	76.3	81.6	98.1	119.9	55.1(85.0)

○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보수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비싸고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군은 2017년 3억 1,130만 원에서 2021년 12억 860만 원으로 288.2%,
나군은 1억 6,620만 원에서 3억 5,240만 원으로 112%, 다군은 8,25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81.8%, 라군은 6,480만 원에서 1억 1,190만 원으로 85.0% 상승.

□ (감사보수 구간별 현황) 감사보수 구간별로는 2021년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 구간이 408개 사로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구간은 증가한 반면 1억 원 미만 구간은 감소

○ 감사보수 1억 원 이상 중견기업 수는 2017년 230개 사 31.0%에 불과했으나, 2021년 547개 사 73.9%로 급증

- 세부 구간별로 5억 원 이상은 2개 사에서 71개 사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7개 사에서 68개 사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211개 사에서 408개 사로 증가

- 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424개 사에서 180개 사로, 5천만 원 미만은 86개 사에서 13개 사로 대폭 감소

<감사보수 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17년대비 증감 기업수
5억원 이상	2	6	17	39	71	69
3억원~5억원 미만	17	30	38	91	68	51
1억원~3억원 미만	211	286	391	421	408	198
5천만원~1억원 미만	424	349	250	172	180	▽244
5천만원 미만	86	69	44	17	13	▽73

나. 감사시간

□ (감사시간)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시간은 2021년 2,531시간으로 2017년 대비 1,115시간(78.7%)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의 평균 감사시간 증가율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약 31.4%p 높았음.

-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시간은 2017년 1,416시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2,531시간으로 78.7% 증가
- 상장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7년 1,682시간에서 2021년 2,791시간으로 65.9%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 경우 1,152시간에서 2,273시간으로 97.3% 증가
- 회계법인별로 4대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1,769시간에서 2021년 4,575시간으로 158.6% 증가했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1,011시간에서 1,390시간으로 37.5% 증가
- 자산규모별로 가군은 2017년 4,100시간에서 2021년 11,836시간으로 188.7% 증가했으며, 나군은 2,307시간에서 3,598시간으로 56.0%, 다군은 1,184시간에서 1,513시간으로 27.8%, 라군은 888시간에서 1,105시간으로 24.4% 증가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시간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17년대비 증가(증가율)
전 체			1,416	1,602	1,796	2,113	2,531	1,115(78.7%)
	상장 시장별	유가증권	1,682	1,923	2,200	2,642	2,791	1,109(65.9%)
		코스닥	1,152	1,282	1,393	1,586	2,273	1,121(97.3%)
	회계 법인별	4대	1,769	2,071	2,390	2,992	4,575	2,806(158.6%)
		중소형	1,011	1,092	1,233	1,574	1,390	379(37.5%)
	자산 규모별	가군	4,100	5,283	6,516	7,722	11,836	7,736(188.7%)
		나군	2,307	2,530	2,736	3,641	3,598	1,291(56.0%)
		다군	1,184	1,321	1,427	1,535	1,513	329(27.8%)
		라군	888	964	1,098	1,106	1,105	217(24.4%)

다. 감사단가

- (감사단가)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단가(시간당 감사보수)는 2021년 101,000원으로 2017년 대비 36.5%(27,000원) 상승
-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단가는 2017년 74,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101,000원으로 36.5%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관계없이 감사단가가 동일

- 회계법인별로 4대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68,000원에서 2021년 102,000원으로 50.0% 상승했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81,000원에서 101,000원으로 24.7% 상승
- 자산규모별 감사단가는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의 상승률이 4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군은 2017년 78,000원에서 2021년 103,000원으로 32.1%, 나군은 73,000원에서 97,000원으로 32.9%, 다군은 74,000원에서 98,000원으로 32.4%, 라군은 76,000원에서 107,000원으로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단가(시간당 감사보수) 현황>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년대비 증가(증가율)
전 체			74	76	81	93	101	27(36.5%)
	상장 시장별	유가증권	74	75	81	93	101	27(36.5%)
		코스닥	75	78	80	93	101	26(34.7%)
	회계 법인별	4대	68	71	84	91	102	34(50.0%)
		중소형	81	81	78	94	101	20(24.7%)
	자산 규모별	가군	78	78	92	98	103	25(32.1%)
		나군	73	73	80	92	97	24(32.9%)
		다군	74	76	81	94	98	24(32.4%)
		라군	76	83	76	88	107	31(40.8%)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

-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한국만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상장협, 2021)
- 엔론·월드컴 등 거대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미국도 회계개혁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을 제정했으나,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지 않음.
- 입법 당시 일정 기간마다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변경하는 의무교체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해당 업종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이 감사 진행 시 감사효율 저하 등의 우려로 제도 도입 유보

- EU 의회(14.4월)는 EU 증권시장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매 10~20년마다 감사인을 교체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
- 미국과 EU의 감사인 독립성 제고 방안은 회사가 일정 기간마다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와 차이가 있음.

<국가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주체	감사위원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감사인 선임위원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없음	존재 (10~20년)	없음	없음	없음
파트너 의무교체제도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	없음				있음

※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021. 10

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급증 등 기업의 경영 부담 폭증

- 新외감법 전·후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 2,300만 원에서 2021년 2억 5,640만 원으로 1억 5,570만 원(154.6%) 상승했으며, 코스닥시장 상승률(184.8%)이 유가증권시장(134.6%)보다 약 50%p 높아 과도하게 폭등
- 4대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 1,950만 원에서 2021년 4억 6,280만 원으로 3억 4,339만 원(287.3%) 상승했으며, 자산규모가 가장 큰 가군의 경우 3억 1,130만 원에서 12억 860만 원으로 8억 9,730만 원(288.2%) 상승
- 평균 감사시간 또한 2017년 1,416시간에서 2022년 2,531시간으로 78.7% 증가
 - 회계감사는 회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며, 감사인이 해마다 감사할수록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감사투입 시간이 감소하는 특성이 존재)
 -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은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을 법적 투입시간으로 해석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1) 코스닥협회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 감사품질 및 감사비용 효과분석』, 2022. 10

* 표준감사시간 :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新외감법에서 규정

-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나 감사시간 보장은 필요하나 新외감법 전·후 지난 5년간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과도하게 상승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함
- 그 원인은 정부가 지정 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임하고,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

다. 주기적 지정제 이후 감사품질 오히려 하락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2019년~2020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20.9%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가군만 5.8건에서 5.0건으로 감소

<상장회사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결과 평균 지적건수>

감사인 지정군	2019년~2020년	2021년
전체	11.5	13.9
가군	5.8	5.0
나군	13.7	14.0
다군	12.9	16.4
라군	15.0	16.5

※ 자료 : 금융감독원

- 新외감법 3대 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에 의하면, 주기적 지정제 이후 감사품질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에 달하고 있음²⁾
- 일부 역량이 되지 않은 회계법인은 책임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의 부담 가중

2) 전경련·상장협·코스닥협회·회계정책학회·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2021. 11. 13

- 또한 회계감사 현장에 경험이 부족한 회계사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 지정제 이전보다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역량 있는 4대 회계법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자산규모별 감사인군은 상장 중견기업의 78.2%가 다군·라군에 해당하여 중소형 회계법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상장 중견기업 중 4대 회계법인 이용 비중은 2017년 53.4%였으나 2021년에 35.8%로 감소한 반면, 중소형 회계법인 비중은 46.6%에서 64.2%로 증가
 - 중소형 회계법인은 역량이 취약하여 부실감사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하고 감사품질 향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 증가

라. 주기적 지정 감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

- 주기적 지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회계법인 간 경쟁을 저해할 우려 증가
 - 상장회사 중 주기적 지정 비중은 2019년 10.1%에서 2022년 22.0%로 증가 추세이며, 직권지정*까지 고려할 경우 상장회사의 지정감사 기업** 비중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음.
 - * 직권지정 : 증선위의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 지정
 - ** 지정감사 상장법인 수 : ('19) 807 → ('20) 1,060 → ('21) 1,256 → ('22) 1,152
 - 지정감사 비중 증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및 서비스 제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경쟁을 저해할 우려 증가

4. 주기적 지정제 개선방안

-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확보했으나, 회계 투명성 향상 및 감사품질 개선 보다는 오히려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급증,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상장 중견기업의 2021년 평균 감사보수 및 평균 감사시간은 新외감법 시행 전인 2017년과 비교할 때 각각 1억 5,570만 원(154.6%), 1,115시간(7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감사품질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
 -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비중이 5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서비스 제고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부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회계법인 제재 강화,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해 왔으나, 본질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 전·당기 감사인 의견조정 활성화, 감사보수 실태점검, 지정감사인 지위 남용 금지,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정 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표준 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
- 주기적 지정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먼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의무교체제도 도입
 - 현행 표준 감사시간 결정 주체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변경 필요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위원회(www.fsc.go.kr)

전경련·상장협·코스닥협회·회계정책학회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2021. 11. 13

코스닥협회,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 감사품질 및 감사비용 효과분석』, 2022. 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021. 10